

#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

金 永 和\*

## — 목 차 —

- I. 서 론
- II. 종군작가단의 활동
- III. 전시문학
- IV. 시의 양상
  - 1. 모더니즘 계열
  - 2. 김춘수의 시도
  - 3. 순수시 계열
- V. 소설의 세계
  - 1. 염상섭과 안수길
  - 2. 황순원의 활동
  - 3. 신인들/오영수와 김성한
- VI. 작가론·기타
- VII. 결 론

## I. 서 론

해방 후 오늘까지 대학의 《근대문학사》 또는 《현대문학사》 강의시간에 교재로 쓰거나 기타 연구에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저서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는 월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을 문학사에 편입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송영 등의 문학을 바르게 연구하여 문학사에 편입시키고 그것을 대학에서 강의해야 한다. 둘째는 해방 후 오늘까지의 문학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정리하고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일이다. 앞으로 남·북문학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문학사를 정리하고 서술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해방 후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수에 따라서는 해방 후의 문학을 문학사 시간에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강의시간의 제한, 교재의 불충분, 문학사적 정리의 미흡으로 해방전의 문학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근래에 와서 월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월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문제일 뿐 이 일은 차츰차츰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의 문학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강의시간에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1970년대의 문학까지는 문학사에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의 서술이 사건 현장에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될 때 객관성을 얻을 수 있듯 문학사 서술도 일정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전제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문학의 변모를 생각하면 1970년대의 문학까지 문학사에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해방 후(1945.8~1950.6)의 문학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한 바 있다. (양중해교수 퇴임기념논문집, 1992) 이 논문은 그것에 이어서 1950년대 전반기(1950.6~1954.12)의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조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의 전반기는 6.25동란, 휴전, 전후 처리 등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다. 문학이 시대와 사회의 반영이라면 50년대 전반기의 문학은 그대로 그 시대의 사회와 현실을 반영한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전쟁과 피난 생활을 거치면서 종래에 지녔던 가치관, 도덕관, 생활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그대로 문화에도 반영된다. 그것은 생활문화가 변모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학인들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방 후부터 접촉이 잦은 미국문화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 미국을 통해 서양문화의 수용으로 한국인의 의식이나 생활, 그리고 가치관이 변했고 그것이 그대로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시대틀 배경으로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은 나왔다. 따라서 전쟁과 관련되었거나 피난생활을 다룬 작품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문학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예술성보다 이념성이 더 강조되는 문학이 나타난 것이다. 그 시대는 그런 문학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그것을 문학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견해의 제시보다 연구 성과의 종합과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할 생각이다.

## II. 종군작가단의 활동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에 의한 기습 남침은 문인들에게 당혹감과 불안감을 주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운성의 「6·25와 문단」<sup>1)</sup>에 의하면 문인들은 6월 26일 긴급 문총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상사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문인들 중 일부는 국방부 정훈국의 권유로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강의를 하기도 했고, 일부는 檄詩를 써서 낭독하기도 했다. 그들은 후에 《문총구국대》를 조직하여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종군하기도 했다. 서울이 수복된 뒤에도 전 문화인들과 더불어 《민족문화인 총결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내주게 되자 문인들은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거기에서 문인들은 육·해·공군별로 종군작가단을 조직했다.<sup>2)</sup>

종군작가단에서 활동했던 문인은 육군에 최상덕·김팔봉·김송·구상·정비석·박영준·양명문·김영수·장덕조·손소희·최태웅·김진수·박인환·김이석·방기환·조영암·이호우·윤석중·장만영·유치환, 해군에 윤백남·염상섭·이무영·안수길·박계주·박연희·이종환·윤고중·이선구, 공군에 마해송·조지훈·최인옥·최정희·곽하신·박두진·박목월·김운성·유주현·방기환·이한직·이상로·황순원·김동리·전숙희 등이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첫째 기관지인 「전선문학」, 「해군」, 「창공」 등을 편집하는 한편 전쟁문학을 쓰는 것이었고, 둘째 군부대의 部隊歌 및 군가를 작사하는 일이었으며, 셋째 일선에 종군하여 군인들을 격려하고 후방에 돌아와 종군 보고강연을 하는 일이었고, 넷째 문학의 밤, 시화전, 문인극을 공연하는 일이었다. 문인극은 문인들 스스로 출연하여 연극을 공연하는 것이었다. 그 때 김영수작 「고향사람들」을 대구와 부산에서 공연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때 문인들은 예술에 종사한다는 생각보다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고 그들은 이 일을 위해 잠시 예술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 때의 문인들의 입장은 1952년 창간된 「전선문학」 창간사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들의 뜻은 허다한 우리의 순국열사들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며 우리들의 행동은坐하여 개탄하고 立하여 규호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폭탄을 안고 적의 참호 깊이 돌입하여 자폭하는……용사의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뜻 이 행동외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임무가 있음을 자각하노니 그것은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여 寸斷의 괴리도 허락지 않는 견고한 유대로서의 연락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 20년」(정음사, 1966), p.78.

2) 위 책, pp.89~101 참조.

이런 결의를 가지고 문인들은 군가 가사를 짓고 전쟁시를 썼으며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주제를 다룬 소설들을 썼다. 그것이 1950년대 전반기 문학의 양상이다.

### Ⅲ. 전시문학

전쟁이 진행 중일 때 나온 평문 성격의 글들의 제목을 보면 그 때의 문단과 문학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김기완의 「전쟁과 문학」(1950.12), 최인욱의 「전쟁문화론」(1951.1), 임금재의 「전시하의 한국문학자의 책무」(1952.4), 이헌구의 「문화전선은 형성되었는가」(1952), 이무영의 「전쟁과 문학」(1953.5), 조연현의 「한국전쟁과 문학」(1953.5), 조규동의 「전쟁과 문화인의 책임」(1957.7) 등의 글들이 나왔다. 이런 급박한 상황 아래서는 장르의 성격상 시가 활발하다. 그 때 전장시<sup>3)</sup>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왔다.

모운숙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유치환 : 보병과 더불어

구 상 : 초토의 시

장호강 : 총검부

김순기 : 일본간의 휴식, 용사의 무덤

이영순 : 연회고지

조영암 : 屍山을 넘어 血海를 넘어

이런 시들의 특징은 첫째 전쟁 현장의 묘사다.

산열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3) 이 용어는 김재홍의 규정한 것을 그대로 쓴다. 이 때에 나온 시들이 모두 전쟁 현장의 시는 아니지만 전쟁 현장과 관련된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한모·김재홍 편,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p.293.]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어노라 스물 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고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어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에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 보다는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같이 머나먼 적진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후략]

—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임영환에 의하면<sup>4)</sup> 이 시는 1950년 8월에 씌어졌다고 한다. 그 때 모운숙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변장해서 숨어지내고 있었다. 변장하고 격전지였던 경기도 광주 근처의 산곡을 헤매다가 죽어 넘어진 국군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즉흥적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다. 그 만큼 6.25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다.

‘원수가 밀어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숨지었노라’, 또는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를 고취하는 시다. 6.25 전쟁의 성격을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 때의 상황과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난 시다. 따라서 작품의 저변에 반공 이념이 짙게 깔려 있다.

격전의 날

4) 윗 책, p.158.

마침내 최후 승리를 결판지어야 할  
돌격의 신호가 오를 때

총아!

너는 네 목이 불덩어리로 녹을 때까지  
원수들의 피를 마셔라  
겁아!

너는 네 몸이 은가루로 부서질 때까지  
원수들의 살을 삼켜라.

오! 내 가슴에도 원수의 총알이 쏟아져 오면  
내 사랑하는 조국의 재단 앞에  
몸소 방울방울 깨끗이 드리오리니

— 장호강의 「총검부」

시적 세련도나 예술성과는 거리가 있는 대신 전쟁 현장을 직접 묘사한 시다. '원수들의 피를 마셔라' 또는 '원수들의 살을 삼켜라'라는 격렬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나 적(인민군)에 대한 증오의 정도가 절정에 이른 그런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시다.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와 더불어 반공 이념이 강하게 드러난 시다.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태대로  
머리만 남아 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

일찌기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짜늘한 가을 바람에 오허려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잊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주검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 조지훈의 「다분원에서」 제5~10연

이 시는 대구 탈환을 위해 한 달 동안 아군과 적군이 엄청난 포화와 혈투가 끝난 다분원을 돌아보고 쓴 시라고 최동호<sup>5)</sup>는 밝히고 있다. 전투가 끝나고 젊은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쓴 시인 만큼 전쟁의 의미, 죽음의 의미, 같은 동족으로서 서로 총부리틀 겨눌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사람들이 묻지를 말아라/이 황폐한 풍경이/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들' 통곡과 외침이 증첩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에는 직접적으로 반공 이념이 노출돼 있지는 않다. 그만큼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위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라는 표현 속에는 반공 이념이 숨겨져 있다.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고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드메를 골라  
고히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 구 상의 「초토의 시·8」

이 시는 전 15편의 연작시다. 이 작품은 전쟁 상황과 전쟁 후의 비참한 생존의 제시 등 6·25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다.

전쟁이 활취고 간 자리에서 시체를 거두고 이것을 사랑으로 감싸 양지바른 곳을 골라 묻는다는 내용이다. 전쟁 후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인의 의지가 짙게 드러나 있다. 전쟁으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휴머니즘의 재건을 담고 있다. 그것은 전쟁 문학에 흔히 나타나는 휴머니즘의 강조를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전시문학적 성격은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박영준의 「빨치산」(1952)과 「용초도 근해」(1953), 김동리의 「홍남철수」(1955)와 「밀다원시대」(1955), 황순원의 「곡예사」(1952)와 「학」(1953) 과학송의 「독목교」(1953) 등이 그런 작품이다.

5) 28인공동집필,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사, 1990), p.261.

박영준(1911~1977)은 6.25때 특이한 체험을 했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북으로 끌려 가다가 간신히 탈출한 경험이 있다. 후에 그는 육군본부 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런 체험이 반공정신을 굳게 한 계기가 된 듯하고 이 무렵에 나온 소설이 「빨치산」과 「용초도 근해」다.

「빨치산」은 생포된 빨치산의 자기 고백을 통해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용초도 근해」는 전쟁 중 전우를 배반했던 한 국군 포로가 포로 교환 때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을 그린 소설이다.

이 두 소설의 공통점은 6.25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 강한 반공 의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소설은 반공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동리(1913~ )는 해방 직후 좌파 문인들과 논전을 벌였던 우파 문인의 선두에 선 작가다. 순수문학을 주창하면서도 사상적 배경에는 우파적 요소가 있는 작가다.

「홍남철수」는 6.25때 시인·음악가·화가 세 사람의 예술가들이 중군문화반에 참여했던 일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수복지구의 민간인들을 선무하는 일을 하는데 참여하면서 수복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동정하고 그들을 돕는데 앞장선다. 특히 시인인 박철은 6.25 때 공산당에 의해 아내를 잃었다. 그만큼 공산주의자에 대한 중요심이 있는 인물이다. 서울이 수복된 뒤에 아이들을 장모에게 맡기고 동부전선까지 중군한 것이다. 평소에 지녔던 반공의식이 아내를 잃음으로써 더 강렬해진다. 그가 하는 일은 수복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강조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반공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는 인정에 약한 인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을 피해 월남하려고 홍남부두에 몰려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철수의 기회를 양보한다. 전쟁문학에서 볼 수 있는 휴머니즘의 일면이 이 소설에 드러난다. 반공과 휴머니즘을 다룬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밀다원시대」는 부산으로 피난갔던 문인들의 생활을 밀도 있게 그린 소설로 문인들끼리 사소한 갈등, 지방 문인들과의 서먹서먹한 관계, 갈 곳이 없어 다방에 출근하는 문인들의 일상생활을 그려 당시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암담하고 절망적인 문인들의 내면세계를 그린 것은 1950년대 전시하의 문학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소설은 황순원의 「곡예사」(1952), 김이석의 「동면」(1958)과 더불어 피난민들의 생활을 조명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시문학은 대체로 예술성이 부족하고 그 문학적 수준도 낮다. 대신에 반공 이념을 앞세워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 문학사의 맥락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당시의 북한문학과 대조된다. 전쟁기의 북한문학이 인민군의 투쟁을 찬양하고 후방 인민들의 애국주의를 고취한 문학<sup>6)</sup>과 비교할 때 남한문학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편, 1959」(인동, 1988), p.240.



## IV. 시의 양상

1950년대 전반기의 시의 양상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계열, 김춘수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순수시 계열의 시들이 그것이다.

### 1. 모더니즘 계열

1951년 부산에 피난갔던 박인환·김수영·김경린·이봉래·김차영·김규동 등이 〈후반기〉 동인을 조직했다. 이들은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계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모더니즘을 계승하겠다는 배경에는 당시 시단을 주도하던 청록파를 중심으로 한 순수시를 비판하고 극복하자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인의 한 사람인 김규동의 「새로운 시론」(1960)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오늘날 한국 시단의 신진적 주류들 형성하여 나가고 있는 제층을 새로운 시인 즉 모더니스트들의 활약이라고 본다면 이와 정반대로 현실의 암흑을 피하여 지나간 과거의 전통 속에서 채잔한 회상의 울타리 안으로만 움츠려들려는 유파들이 또하나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시단만이 가지는 슬픈 숙명인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청록파〉를 중심으로 한 시인들의 소위 순수시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김규동의 순수시 비판은 보수적이며 정태적인 서정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일단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시의 변모와 발전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아무 잠음도 없이 도망하는  
도시의 그림자  
무수한 인상과  
전환하는 연대의 그늘에서  
아 영원히 흘러가는 것  
신문지의 경사에 얽혀진  
그런 불안한 격투

[중 략]

병든 배경의 바다에  
국화가 피었다.  
폐쇄된 대학의 정원은

지금은 묘지  
 회화와 이성의 뒤에 오는 것  
 슬취한 수부의 팔목에 끼어  
 파도처럼 밀려드는  
 불안한 최후의 회화

— 박인환의 「최후의 회화」

전통적 서정시인 <청록파>등의 순수시에서 볼 수 있는 哀·怨·恨의 전통적 서정이나 민요적 가락이 없다. 대신에 1950년대의 사회적 불안을 산문적으로 묘사 내지 서술하고 있다. 무질서와 불안, 도시적이고 병든 풍경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들의 생각이다.

이런 경향의 시는 김경린의 「태양이 지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조항의 「바다의 층계」, 이봉래의 「청계천(3)」등이 있다.

<후반기> 동인들은 도시와 문명을 소재로 택했으며 1930년대의 모더니즘 시의 방법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런 전체 아래 서구적 문화 감각에 무방비로 노출된 1950년대의 한국 사회의 병적 징후를 대변하고자 했다.

그들이 순수시를 비판하고 극복하자는 의도는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성공을 거두었느냐는 데는 의문이다. 시로서 뛰어나거나 성공을 거둔 작품이 없기 때문이다. 폐허가 된 50년대의 도시를 거칠게 노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 2. 김춘수의 시도

해방 후부터 시를 발표해 오던 김춘수(1922~ )는 1952년 「꽃」이라는 독특한 작품을 발표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 김춘수의 「꽃」

〈청록파〉나 서정주류의 순수시와도 다르고, 모더니즘 계열의 시와도 다르다. 우선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는 데서부터 독자를 당혹하게 만든다. 사물인 꽃과 화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존재한다. 화자가 사물에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대상인 사물은 드디어 존재의 영역으로 떠 오른다. 이것은 언어를 통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만든다. 언어와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계기를 제공해 주고 사물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 문학사에서 새로움이고 이런 시도는 1960·70년대의 난해시, 무의미의 시를 낳게 한 모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 3. 순수시 계열

1950년 전후부터 시를 발표해 오던 조병화·김운성·정한모·이동주·이원섭 등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순수시 계열의 시를 내놓았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중 략]

서로 다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려니  
인생이 그러하거니와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중 략]

두고 가는 걸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아! 우리 서로 마지막  
말을 배우며 사세

— 조병화의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조병화(1921~ )의 시는 우선 쉽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에서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찾아 노래한다. 그의 시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작시 「의자」는 그런 세계를 한층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의자」는 역사의 흐름가운데 서 있는 자아를 되돌아 보고 의자를 물려 받고, 물려 줌으로써 역사속의 자아를 자각하고 현재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음을 노래한다. 이런 잔잔한 서정은 김윤성(1925~ )이나 정한모(1923~1980)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산고를 치룬 젊은 어머니가  
생후 몇 시간 밖에 안 된 아기와  
나란히 누워 있다.  
젊은 어머니는 처음으로  
옆에 있는 아가의 손을 잡아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아직 아무것도 잡아보지 못한 작은 손이다.  
20여년 세월의 해묵은 손과  
순수무구한 이튿없는 손과의  
첫 악수.

산원의 아침 햇살은  
그림 같은 정적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아침을 잉태하고 있다.

— 김윤성의 「장면」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중 략]

꿈에서 지금 막 돌아 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 왔느냐

— 정한모의 「나비의 여행」

김윤성의 '갓 태어난 아가'와 정한모의 나비로 상징되는 '아가'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엿보게 하는 이런 시들에서 1950년대 순수시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친 시대나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와 대조되는 약한 것, 순수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솟아난다. 그것이 그런 시대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조병화·김윤성·정한모 등은 살벌했던 1950년대의 일상의 서정과 순수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 서정시의 한 흐름을 계승한다.

순수시 계열이면서도 전통적 서정과 가락이 짙게 드러난 시를 내놓은 시인에 이동주(1920~1979)와 이원섭(1924~ )이 있다.

여울에 물린 은어떼  
 뻬비꽃 손들이 들레를 짜면  
 달무리가 비잉빙 돈다.

가아옹 가아옹 수우워얼래에  
 목을 빼면 설움이 솟고……

백장미 밭에  
 공작이 추했다.

뛰자 뛰자 뛰어나 보자  
 강강술래

뉘누리에 테프가 감긴다

열두 발 상모가 마구 돈다.

달빛이 배이면 술보다 독한 것

기폭이 찢어진다.

갈대가 쓰러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 이동주의 「강강술래」

토속적, 전통적 서정에 독특한 음악성을 가지고 한국적 정한을 표현한 가장 한국적인 시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시는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 등이 시의 계보를 계승하는 것으로 토속적 서정의 시 세계가 면면히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시인 「혼야」(1948)의 세계를 그대로 지닌 이런 시는 한국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다. 이원섭의 「내가 가는 길」, 「전야」 등도 이 계열에 속한다.

1950년대 전반기의 시는 모더니즘 계열, 김춘수의 존재탐구의 시, 그리고 순수시로 나뉜다. 모더니즘의 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1930년대 모더니즘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특히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한 것은 전통시·순수시의 배경이 전근대적 토속적 향토적인 것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계는 변하고 우리 사회도 벌써 근대적 문명의 세례와 그 병폐를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시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일단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시가 시로서 성공을 거두었느냐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다.

김춘수의 존재의 탐구는 새로움이 있다. 사물의 존재를 새롭게 조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신에 시가 어려워 독자와의 거리를 갖게 되어 친근감이 없다. 이런 시는 1960년대 이후 이승훈 등에 의해 시도되는 난해시, 무의미의 시에 영향을 주어 우리 시의 영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순수시 계열 가운데 이동주·이원섭의 시는 哀·怨·恨이라는 전통적 정서에 닿아 있고 리듬도 전통적 가락에 근접해 있어 한국시의 주류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김소월, 김영랑, 서정주, 박목월의 시 세계에 근접해 있으면서 한국 전통시의 확대에 기여한다. 그리고 조병화, 김운성, 정한모 등의 순수시는 시의 소재나 사물에 접근하는 자세가 전자에 비해 세련되고 참신한 점이 새로움이다. 단조로운 전통시를 넘어서서 새로운 순수시를 개척하는 데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 V. 소설의 세계

### 1. 염상섭과 안수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문단에 등단하여 작품을 써 왔던 작가들 가운데 염상섭, 김동리, 안수길, 박영준, 황순원 등은 전시하에서도 계속 작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서 박영준과 김동리는 반공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내놓았다. 6.25전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면서도 반공적 색채가 덜 드러난 작품을 쓴 작가가 염상섭과 안수길이다.

「만세전」(1924), 「삼대」(1931)의 작가 염상섭(1897~1963)은 6.25 전쟁을 체험하고 「취우」(1953)를 발표했다. 작품의 기조는 「만세전」이나 「삼대」의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소시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려내고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미무역의 김사장은 돈가방을 챙겨 들고 비서이면서 첩인 강순제와 부하 직원인 신영식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다. 그러나 그들이 한강에 이르렀을 때 다리가 이미 파괴되어 도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산치하 3개월을 숨어 지내는 이야기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6.25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 파악하려 하지도 않는다. 인민군이 남침해 왔으니 어떻게든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 「취우」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6.25 전쟁을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갑자기 소나기 쏟아졌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곧 멈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일시 그 비를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소나기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듯 6.25 전쟁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 드러난다. 전쟁에서 철저히 소외된 서울의 소시민 내지 중산층의 의식이 이 소설에 드러난다.

이 소설을 통해서 6.25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발견한다. 언제나 역사의 격동기에 살면서도 철저히 소외되거나 피동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의식의 일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쟁의 의미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이 소설은 암시한다.

안수길(1911~1977)은 남북분단, 6.25 전쟁, 피난생활 등 역사적 격동기 속에 인간이 순수한 양심을 어떻게 잃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와 현실이 암담하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인간은 사명감을 발견하고 수행해 나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사명감을 잊고 세속적인 이해에 얽혀 타락하기도 한다는 점에 그는 주목한다. 「여수」(1949), 「제비」(1952), 「나루터의 탈주」(1952), 「역의 처세철학」(1952), 「제3인간형」(1953) 등 6.25를 전후해서 발표된 작품들에 그런 세계가 있다.

「제3인간형」은 세 사람이 등장한다. 조운, 미이, 석, 이 세 인물이 그들이다. 전쟁전에 조운은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소설을 쓰는 고고한 작가였다. 빈궁 속에서도 속세와 타협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전쟁중에 사업에 손을 댄 후 돈을 벌게 되자 타락한 생활에 빠진다. 미이는 전쟁 전 부락한 문학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 6.25를 만나 가정의 파탄과 몰락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사업가로 변신한 조운의 도움을 거절하고 간호 장교로 나아가겠다는 그녀는 전쟁을 겪으면서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된다. 제3의 인물인 석은 작가이면서 동시에 교사다. 전쟁으로 피난생활을 하는 동안 작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원으로서도 충실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전쟁을 통해서 조운은 사명감을 상실했고 미이는 사명감을 발견했으며 석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6.25 전쟁의 원인이나 성격에 대한 탐색보다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 유형을 안수길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운을 부정하고 미이를 긍정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안수길은 반공 일변도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 2. 황순원의 활동

1950년대에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인 대표적 작가는 황순원(1915~ )이다.

6.25 때의 피난 생활을 그린 「곡예사」(1952)는 한 소설가의 가족의 피난생활의 어려움과 애환을 그린 화제작이었고 「학」(1953)에서는 전쟁 당시의 순박한 젊은이들의 세계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가운데서도 굴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작품이다.

삼팔 접경의 마을에서 성삼이와 덕재는 함께 자랐다. 그들의 부모는 개화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소박한 농민들이다. 성삼이와 덕재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농촌 청년으로 성장한다. 근대적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순박하고 이해타산에 예민하지도 않다.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능력조차 없는 문명 이전의 순수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6.25가 일어나자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성삼이는 치안대원,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라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게 된다.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어렸을 때 함께 학 사냥을 했던 순수세계로 돌아가 화해하게 된다. 6.25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소설이다.

황순원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긍정하면서 6.25의 민족상잔의 극복을 암시하고 있다. 극소수의 이데올로기 광신자들에 의해 선량한 다수가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급조된 좌익과 우익에 저도 모르게 함몰되어 간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생각케 해주는 소설이 「학」이다.

이데올로기와 인간과의 관계는 그의 장편소설인 「카인의 후에」(1954)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해



방 후 북한에서 있었던 토지 개혁 과정에서 양심적인 지주이던 박훈 일가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순종하던 소작인의 돌발적인 반항과 변신 개털모자로 상징되는 공산당원이 비인간성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비슷한 소재를 작품화한 이태준의 「농토」(1947), 이기영의 「개벽」(1946)과 대조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는 전쟁에 참가한 젊은이들, 후방에 있는 여인들이 모두 전쟁으로 어떻게 시련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황폐해 가는가를 그려내고 있다. 전쟁에 참가했던 동호, 현태, 윤구, 선우 상사의 방황과 좌절, 후방에 있었던 장숙, 부대 주변에 있었던 옥주 등 모두가 뿌리를 땅에 단단히 박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당시의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이기도 했다. 이 소설은 전쟁을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흔들림을 비탈에 선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비탈에 선 나무는 산사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뿌리가 뽑혀 쓰러질 운명에 있다. 그것이 전쟁기의 한국의 청년상이라고 하는 듯 보인다. 「곡예사」, 「학」, 「나무들 비탈에 서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는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혹은 전쟁 상황을 그렸다가보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황순원의 또 하나의 세계는 「소나기」(1953), 「잃어 버린 사람들」(1956), 「내일」(1957) 등의 소설에서 볼 수 있다. 이 소설들은 순수한 남녀 관계, 탈세속적인 남녀 관계의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이다. 성인이면서도 동심으로 돌아가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어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꿈과 낭만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장편소설인 「카인의 후예」나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도 남녀간의 아름다운 순수사랑이 제시된다. 「카인의 후예」의 박훈과 오작녀의 사랑,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와 장숙의 사랑이 그것이다. 이런 순수사랑은 해방 전에 발표한 「늪」(1940), 「소라」(1940), 「피아노가 있는 가을」(1940)에서도 다루었고 1960년대 이후에 나온 「일월」(1962)에서의 인철과 다혜, 「움직이는 성」(1972)에서의 함준태와 남지연, 「신들의 주사위」(1981)에서의 한수와 진희의 사랑에도 비슷한 세계가 있다. 황순원은 남녀의 순수사랑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보인 작가다.

### 3. 신인들/오영수와 김성한

6.25 직전 1950년 1월 신춘문예를 통해서 나온 오영수와 김성한도 이때 상당수 작품을 발표했다.

오영수(1914~1979)는 1949년 7월 「남이와 옛장수」가 《신천지》에 추천된 바 있고 1950년 1월 「머루」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이 두 작품에 공통적인 것은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람들을 소설의 작중인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무학에다 가난한 이들 서민들을 관찰하면서 오영수는 이들에게서 소박함, 선량함, 단순함, 어리석음, 그리고 인정이 두터움 등을 발견하고 그런 요소들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해내고 있다.

「머루」(1950), 「친가와 백가」(1952), 「화산댁이」(1952), 「갯마을」(1953), 「대장간 두칠이」(1951), 「상춘」(1951), 「설야」(1951), 「두 노우」(1953), 「용연삽화」(1954) 등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이고, 서민들 가운데서도 시골인 농촌이나 어촌 또는 산촌 출신의 소박한 사람들이다. 오영수는 이런 인물들이 격변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고 있다.

이 소설들 가운데서 「머루」, 「화산댁이」, 「갯마을」 등은 그의 초기작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소설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무학이고 농업이나 어업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아무런 간섭없이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런 세계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인정이며, 이런 인정을 저버리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의 변화나 시대 상황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들은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다. 이런 꿈들이 시대의 변화와 세태의 변이에 따라 차츰차츰 무너지면서 그들의 삶의 뿌리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인물들은 재래의 한국인들이고, 전근대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어 묘사해낸 것이 오영수의 세계다. 팔치산의 준동이나 6.25가 일어나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의 세계를 그린 소설에서도 그런 외적인 상황의 의미보다 이런 상황속에 떠밀려 나가는 소박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보수적, 정태적, 전근대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작가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

이런 오영수의 세계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태춘기」(1956), 「명암」(1958), 「메아리」(1959), 「은넛골 이야기」(1961)까지 확대되어 오영수는 한국의 촌민 또는 서민세계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들의 유머감각에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의 소설 가운데 유머가 도처에 있지만 「명암」, 「메아리」, 「제비」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그것은 조선조 서민문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1930년대 김유정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영수는 한국적, 전통적 요소가 강한 작품을 내놓은 작가다.

김성한(1919~ )은 1950년 1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무명로」가 당선된 이후 「암야행」(1954), 「오분간」(1955), 「개구리」(1955), 「달팽이」(1957) 등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 가운데 「무명로」, 「암야행」, 「달팽이」 등은 역사의 파행성과 인간의 비속성을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이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부일 협력자들을 용징하기는 커녕 재등용시켜 민중 위에 군림케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 경찰, 일본군의 장교, 일제 때의 관리와 교육자 등 부일 협력자들이 그대로 새로운 정부 아래서도 경찰, 군, 관리, 교육자로 남아 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해방 후 민족정기나 민족정신을 흐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점이다.

김성한 소설은 부일 협력자들이 해방 후에도 사라지기는 커녕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풍자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암야행」의 주인공은 일제 때 형사로 있으면서 관부연락선을 통해서 오고가는 유학생들을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붙잡아다 고문하는 데 앞장 섰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해방 후 학교의

이사장과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민족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해방후의 우리의 역사다. 김성한은 은연중에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

「달팽이」의 주인공 원달호는 동경에 유학중 조선학생끼리 비밀단체를 조직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단체가 발각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일본경찰에 밀고하여 자기는 곤경에서 벗어나고 동료들은 구속된다. 동료들이 석방되어 나온 후 그것이 원달호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는 못매를 맞고 달팽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런 원달호가 해방 후 정부의 차관, 장관, 그리고 대학 학장까지 지내면서 점잖고 덕망이 있는 인물로 자처하고 있다. 이것도 「암야행」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역사의 파행성과 인간의 위선과 비속성을 풍자하고 있다.

김성한은 6.25 전쟁을 체험하면서 인간과 문명에 대한 회의를 더 갖게 된다. 「오분간」, 「개구리」에 그것이 드러난다. 「오분간」은 문명의 한계와 인간성의 추악상을 고발한 소설이고 「개구리」는 문명에 대한 회의, 역사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소설이다. 「오분간」과 「개구리」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불신이다. 우화소설인 「개구리」에서 인간이 이룩한 문명,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낸 이념의 대결과 전쟁에 대해서 김성한은 비판적이다. 헤브라이의 신을 섬기다 지친 인간의 의식은 20세기에는 이즘(ism)이란 것을 꾸며 가지고 그 앞에 굽신거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20세기에 들어와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것이 인간의 의식의 산물인 이즘에 굽실거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이 지닌 속명 같은 노예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25도 이 노예근성의 산물이라고 하는 듯 보인다.

김성한은 2차세계대전과 6.25 전쟁은 몸소 체험했다. 그 때마다 내세우는 명분에 이념이 있음을 알았다. 6.25 전쟁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ism)라는 것, 사상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학살했는가를 그는 목격했다. 특히 그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6.25를 바라보고 거기서 인간과 문명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작품으로 그려내었다. 김성한은 6.25를 통해서 문명과 인간성의 허구를 보았고 그것이 그대로 그의 문학에 투영됐다. 이 점이 문학사에서 새로움이다.

## VI. 작가론 · 기타

1952년 김동리의 「문학과 인간」, 조연현의 「한국현대작가론」, 1955년에 곽중원의 「신인간형의 탐구」 등의 평론집이 나왔다. 이 평론집에 수록된 평론들은 대체로 1950년대 전반기에 나온 글들이다.

이 평문들 가운데 주목할 것은 작가·작품론이다. 김동리의 김동인, 이효석, 김소월, 청록파 시인들에 대한 작가론, 조연현의 김동리, 황순원, 박두진론, 곽중원의 황순원, 안수길, 유치환론 등이 그런 글들이다.

한국 비평은 무엇보다도 이론비평·원리비평이 약하다. 한국 평단에 여러 가지 문학론이 나오고 있으나 대체로 독창적인 견해라기보다 서양문학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변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우리 근대문학의 형성 배경에 서양문학이 깊게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비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작가·작품론이다.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논리에 서양의 이론이 깔려 있지만 한국 작가가 창작한 구체적인 작품에 접근하는 데는 이론보다 작품 자체의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에도 작가·작품론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소박한 인상비평의 수준에 그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가·작품론의 수준은 그 때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1950년대의 비평가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조연현이다.

조연현(1920~1981)은 해방 후에 서정주, 이상, 김동리, 최명익, 최정희, 박두진, 정비석, 오장환, 손소희 등의 작품에 대한 리뷰를 시작으로 1950년대에 와서는 그와 동시대의 작가인 김동리, 황순원, 서정주, 청록파 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최남선에서부터 1950년대에 등단한 오영수, 김성한, 손창섭, 박경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검토를 하고 있다.

곽중원(1915~ )은 1950년대 전반기에 「6.25 동란 이후의 작단 개관」, 「정해문단의 회고」, 「1953년 창작 총평」, 「1954년 문단 개관」, 「1955년 창작계 총평」 등 당대 작품에 대한 작품평을 주로 했다.

조연현, 곽중원의 평론 활동은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평단의 성과는 작가·작품론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Ⅶ. 결 론

1950년대 전반기의 문학은 주로 6.25전쟁이 진행중에 나온 문학이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그 시대의 문학에는 6.25 전쟁이 중심 과제가 된다. 문학의 소재를 전쟁에서 택한 경우가 흔하고 반공 이념을 고취한 문학까지 나왔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순수문학이 나오고 예술성을 중시하는 문학까지 나왔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주류는 전쟁 상황과 관련된 작품이 많다.

이런 문학은 예술성이 부족하고 이념성이 노출되어 문학 작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6.25 전쟁은 그 성격이 복잡하고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나온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 반공 일변도의 것이 주류를 이룬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 왔으니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쟁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머니즘이 강렬하게 형상화된 작품조차 없다. 그만큼 6.25의 의미를 폭넓고 깊게 생각할 여유가 당시의 문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는 악,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선이라는 전제 아래 선과 악의 대결, 흑백 논리 위에서 있다. 그만큼 문학으

로서는 단조롭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학이다. 오히려 전쟁과는 떨어진 자리에서 작품을 쓴 작가들의 작품이 뛰어난 편이다.

## 참 고 문 헌

- 조연현, 「문학과 사상」, 문학세계사, 1949.  
 김동리, 「문학과 인간」, 청춘사, 1952.  
 곽종원, 「신인간형의 탐구」, 대학당, 1955.  
 조연현, 「문학과 그 주변」, 인간사, 1958.  
 백 철, 「문학의 개조」, 신구문화사, 1959.  
 이현구, 「모색의 도정」, 정음사, 1965.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9.  
 조연현, 「현대한국작가론」, 문명사, 1970.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김영화, 「현대작가론」, 문장사, 1983.  
 정한모·김재홍 편저,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오생근편, 「황순원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전광용·신동욱, 「현대문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28인 공동집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90.  
 이재선, 「한국현대단편소설사」, 민음사, 1991.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편, 1959」, 인동, 1988.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II, 1986」, 인동, 1988.

Summary

##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Kim Young-hwa*

This paper studies Korean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from June 1950 through December 1954) from the viewpoin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first half of the 1950s is the period deeply concerned with the Korean war, which began on June 25, 1950. Therefore, the Korean war is important subject matter in the literature of that time. This period selects war and refuge as its subjects, but it is mainly inspired by anti-communism in its themes.

The works of this age are clearly characteristic of wartime literature and furthermore of anti-communist literature. For instance, there are anti-communist works, "Korean Soldiers Speak after Death," by Mo Yoon-sook, "Partizan," by Park Young-joon.

Even though it was wartime, a literature of artistic quality consistently emerged. Among the outstanding works are a series of pure poems and novels written by Hwang Soon-won, Oh Young-soo and Kim Sung-han.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is a period of two co-existant types, wartime anti-communist literature and pure literature.